하나님의 내 몸 사용법

(마태복음 15:29~39)

2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31.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내 몸 사용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내 몸 사용법'

새해에는 "마음 편할 날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 마음 편할 날이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보신 적이 없지요. 그러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는 마음이 편치 않은 쪽이 훨씬 더 큰 은혜이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극단적인 불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닌 원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게 된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혹은 돈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마음의 불편한 상태를 피해야 하는 안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근본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우자나 자녀 혹은 돈이나 건강 등의 문제를 탓하는 것은 괜한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불편하면 소나기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몸을 쓰십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기 위해 몸을 쓰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몸에 밀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밀착되었기에 몸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세상에 속한 이상 어떤 사람의 몸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기에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이 몸에 밀착되는 동안에 몸을 내 것이라 착각하고 가짜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죽을 때까지 몸을 주장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몸 사용을 "교정적 사용법"이라고 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정적 의도로 나의 몸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비껴서 몸에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교정하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몸에 직접 불편을 주시거나 몸으로 관계하는 대상에게 문제를 주셔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몸 사용으로 "창조적 사용법"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창조적 의도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즉 창조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가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밀착은 곧 나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대상도 끼어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을 통해 창조적인 활동을 해나가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몸 사용에는 "체념적 사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몸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교정하시기 위해 몸을 통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몸을 통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을 체념하시고 더욱 더 세상에 밀착되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정적 사용법, 창조적 사용법, 체념적 사용법을 통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75억 명의 몸을 사용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15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동선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정결법에 대해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15장 전체를 주관하는 주제가 되며 또한 이 주제는 마태복음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먼 곳으로 여겼기에 예수님은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해 선포하셔야만 했습니

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36~37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멀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는 가까이 온 천국을 중심으로 한 마음의 거리가 주제로써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싶지만 인륜으로 묶인 모녀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낼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는 곧 마음을 가장 그리워하는 대상에게 보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에 크게 감탄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방인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또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말씀의 반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과 하나님의 거리감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편의 이방 땅에 와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31절을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질병에 걸린 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은 모두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다만 가나안 여인의 상황과는 다르게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지도 않았으며 큰 믿음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앞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개로 비하하시며 믿음을 시험하시는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시험의 과정도 필요가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여인의 믿음이 증명되는 계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서는 믿음에 대한 시험의 과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의 의미를 몰랐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나타난 가나안 여인의 상황과 다르기에 특이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31절의 하반부를 보면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여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메시아는 그리워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는 광경을 보게 되자 유대인들이 찾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갖고 계신 당신의 마음을 계시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장애나 질병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따라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무관한 이들도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이어서 나타나는 칠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가 유대 땅에서 선민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칠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허기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이들의 배고픔을 염려하시고 먹이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장애와 질병과 굶주림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이방인이면서도 가나안 여인의 마음과 무리의 마음은 대조적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또한 무리 중에 있었다면 딸은 고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 정말로 바랐던 것은 단순히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였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하는 시험을 받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다면 왜 장애나 질병과 가난을 겪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다면 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병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에덴을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좀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장애인들을 고치셨다는 사실보다는 대체 왜 이들에게 장애가 생겼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의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애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주셨으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고 염려하지 말

라고 하시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여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대비되게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고자 했던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소원은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하나님께 마음이 밀착하고 싶으나 흉악한 귀신들린 딸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을 귀신들린 딸에게 빼앗기는 동안 하나님을 가질 수 없는 비참함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륜까지도 앞서는 이 믿음에 놀라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다면 예수님께서는 모성애를 칭찬하셨을지언정 믿음을 칭찬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장애나 질병 혹은 굶주림을 겪기를 바라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몸을 교정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몸에 밀착되었고 또한 몸을 통해 만나는 대상들을 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계기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몸이 관계하는 일들에 문제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음이 몸에 붙어있기에 몸으로 관계하는 일들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교정적 주권이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김받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불편함은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지 못하고 몸과 밀착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밀착 상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똑같이 스스로를 비참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고백입니다. 육체 때문에 그토록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할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일들을 제거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세상의 일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성분으로 하는 주권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맡아주시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에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신 잘못된 상태를 교정하기 위해 주신 마음의 불편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몸에 밀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를 벗어나게 하시려 몸에 불편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장애나 질병 혹은 가난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친지 애인 등에 대한 문제로써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이 불편함은 고마운 일입니다. 이 불편함이 없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마음이 끝장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식사 때에 손을 씻는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 때에 14절을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을 아시면서 그대로 두라니 참 냉담하신 반응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담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체념시킨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경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하며 영광을 돌리자고 합니다.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은 돈과 인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며 살펴보았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몸에 밀착되어서 몸으로 만나는 돈과 인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상황에 비유하십니다. 자신의 상태가 비참한 줄도 모르는 자들이 또한 그러한 자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토록 냉담하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표리부동한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는 구덩이에 빠지도록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체념적 몸 사용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과 몸이 밀착하는 상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관계하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되니 마음이 불편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기는커녕 즐거워서 더 큰 욕심을 내고 더 큰 것을 많이 갖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소위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뛰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꿈이 워낙 커서 부담을 갖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결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은 몸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축복은 몸이

없어져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행여나 깨달음을 얻어 돌이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몸을 사용하시는 교정적 사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체념적 사용법입니다. 그냥 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무서운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사람, 마음이 몸에 밀착되어 있지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예배당조직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적 사용법"으로 쓰시는 몸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은 창조적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일하며 발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창조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적인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마치 불사신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핵폭탄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될 수만 있다면 삶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왜 평생을 사탄의 가시라 부를만한 질병으로 고생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원죄의 속성에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가진 원죄의 속성은 틈만 있으면 마음을 몸에 밀착시키고자 합니다. 그 틈은 마음에서 십자가를 놓칠 때마다 찾아옵니다.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은 몸에 밀착되고 맙니다. 이로부터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생활화를 이론적으로 확립하고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교정적 사용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 부를만한 질병으로 인해 평생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밀착해야 함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몸에 붙은 상태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몸에 사탄의 가시라 부를만한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생겨난 불편함이 오히려 마음이 몸에서 떠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밀착시키자 몸이 아픈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았기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암이나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주나 화가 아닙니다. 인생을 실패했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몸에 아무 불편도 주어지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마음이 몸에 밀착하게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저주입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몸을 체념적으로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도록 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정적 사용법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밀착을 유일한 소원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몸에 있는 질병이나 장애는 물론이고 몸과 연관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교정적 의도로 사용하시는 크신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기필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를 잊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교정적 사랑의 의도를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